

‘임금님 진상품’ 무등산 수박 천년 역사 사라질 위기

매년 재배 농가 줄어 올해 한자리수... 기후위기에 생산량도 감소 내달 18일 출하 앞두고 작황 좋지 않아 1500통 예상 ‘역대 최저’

조선시대 임금님 진상품으로 광주지역 대표 특산품인 ‘무등산수박’ (일명 푸랭이)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기후위기로 인해 매년 재배농가와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한자리 수로 줄어든 재배 농가마저 재배를 포기하면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무등산수박이 사라질 위기인 것이다.

이에 재배농가와 전문가들은 지역 대표 특산품에 맞는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5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1997년 34농가(재배면적 12ha)였던 무등산수박 재배 농가가 2017년 11곳(3.1ha)으로 준데 이어 2020년 이후 한자리 수인 9곳(2.6ha)으로 줄었다.

문제는 내년에도 1곳의 농가가 업종을 바꾼다고 알려져 무등산수박을 재배하는 농가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재배농가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기후위기에 따른 생산량 감소가 꼽히고 있다. 생산량 감소는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져 재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등산수박 생산량은 3000통(2015년)→2800통(2016·2017년)→2700통(2018년)→2000통(2019년)→1700통(2020년)→2500통(2021년)→2000통(2020년)으로 감소했다.

올해처럼 장맛비가 계속되거나 폭염이 이어지는 등의 기후위기가 발생하면서 순재래종인 무등산수박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 무등산수박 생산조합은 올해도 장마기간이 길어 역대 최저 생산량인 1500통 내외로 내다보고 있다.

다음달 18일 출하를 앞두고 있지만 올해도 무등산수박의 생육상태가 좋지 못한 탓이다.

25일 오후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북구 금곡동의 한 비닐하우스 안에는 무등산수박 400여통의 잎이 대부분 시들어 있었다. 일부 잎은 검게 변해 있었고 아래로 축 쳐져 고사한 듯 보였다.

오랫동안 햇빛을 받지 못하다 갑작스럽게 빛에 노출되면서 온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시들고 있다는 것이 재배 농민의 설명이다.

15년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무등산수박을 재배했다는 문광배 무등골 영농법인 대표는 “많은 비로 잎이 녹아버렸고 일조량이 적어 영양분 섭취도 부족한 상태”라면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무등산수박은 재배 조건이 유독 까다로우니 그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문광배 무등골 영농법인 대표가 25일 오후 광주시 북구 금곡동의 비닐하우스에서 햇빛을 받아 수박이 잘 자라도록 잎을 들추고 있다.

비닐하우스 재배는 그나마 피해가 적은 편이지만 전체 농가의 20%인 노지(땅)재배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맨 땅에 심어진 수박은 극한 기후변화에 바로 노출되기 때문이다. 재배 농민들은 올해

처럼 많은 비가 내리면 노지 재배는 사실상 수확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호소하고 있다. 무등산수박 재배 농가는 1개 농가를 제외하면 모두 전업으로 삼고 있다. 연례대 역시 가장 어린 농

부가 50대로, 젊은 층의 유입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한해 농사를 망치게 되면, 경제적으로 손실이 커 품종 변경을 고려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시와 북구, 전남대는 올해 5월 ‘무등산수박 육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를 통해 생육에 도움이 되는 미생물을 관수로 3.3㎡(1평)당 2ℓ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영양소를 공급하는 등 농가 피해 최소화해 힘쓰고 있다.

광주시와 북구는 농가생산장려금(총 1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왕겨술과 진공포장 기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농가들은 무등산수박의 재배 난이도와 변수에 맞춘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 농가당 100만원이 조금 넘게 지원되는 생산장려금만으로는 비가림 시설조차 설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종자 개량 연구에 예산을 적극 투입해 보느냐는 생육 조건에서 무등산수박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무등산수박은 개량종보다 병해충에 약해 손이 많이 가고, 지름 1m, 깊이 1.2m 이상을 파고 심어야 한데다 화학비료를 사용해서는 안되고 완숙한 퇴비나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는 등 재배 방법이 까다롭다.

재배농민들은 대다수가 고령인 만큼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선 종자 개량이 우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글·사진·김디안 기자 kdi@kwangju.co.kr

건강 관련 경고 2題

잠드는데 30분 넘으면 사망위험 2배

잠이 들기까지 30분이 넘게 걸리는 현상이 지속되면 빨리 잠이 드는 사람보다 사망위험이 최대 2배 이상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려대 의대 인간게놈연구소 신철 교수 연구팀은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과 사망 위험 사이에 연관성을 연구한 결과를 국제의학저널 ‘랜셋 건강 장수’ (Lancet Healthy Longevity)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연구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40~69세 3757명을 대상으로 18년 동안 진행됐고, 시간 경과에 따른 특정 집단의 질병이나 사망 양상을 관찰했다.

연구팀은 잠자자들이 잠이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간헐적 지연 그룹’ (한 달 동안 30분 이내에 잠이 들지 못한 경우)과 ‘습관적 지연 그룹’ (1주일에 한 번 이상 60분 이내에 잠들지 못하거나 세 번 이상 30분 이내에 잠들지 못한 경우)로 나눠 사망 위험을 비교했다.

연구결과 간헐적 지연 그룹과 습관적 지연 그룹의 사망 위험은 인구통계학적·신체적 특성, 생활 습관, 만성질환 등의 변수를 모두 보정했을 때 각각 1.33배, 2.2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습관적 지연 그룹의 경우 앞으로 사망할 위험이 같은 비교 조건에서 2.74배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은 잠이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동안 뇌에서 분비되는 수면 리듬 조절 생체호르몬인 멜라토닌의 결핍이 발생해 암 사망 위험을 높이는 데 잠재적인 요인이 됐을 수 있다고 봤다.

연구팀은 “만성적인 수면 장애는 물론 사망과 암 위험도 높일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연합뉴스

수유부, 코엔자임Q10·스쿠알렌 안돼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엄마(수유부)라면 코엔자임Q10과 ‘스쿠알렌’ 등의 원료가 든 건강기능식품의 섭취를 피해야 한다고 정부가 권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 9종의 안전성·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원료별로 기준과 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기능성 식품원료 9종에 대한 섭취시 주의사항의 추가다.

이에 따라 수유부는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N-아세틸 글루코사민),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섭취를 피하라는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귀리식이섬유, 키토산-키토올리고당,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알로에 겔의 경우 1일 섭취량이 다시 설정됐다. 또 일부 원료에 대한 납·카드뮴 등의 함유 규격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규제혁신 2.0 과제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식약처는 천천히 녹는 특성의 ‘지속성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정의와 시험법을 신설했다.

기존에는 봉해 특성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경우 위의 산성 조건에서 봉해되지 않고 장에서 봉해되는 ‘장용성 제품’으로만 제조할 수 있었지만 최근 신기술이 적용됨에 따라 천천히 녹는 특성을 가진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알로에 겔이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분말 형태만 사용이 가능하던 것을 액상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오는 9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특전사동지회 5·18진상조사위 3개월만에 ‘빈손 해산’

사단법인 특전사동지회가 지난 4월 출범한 자체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성과 없이 3개월만에 해산했다.

25일 특전사동지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특전사동지회 중앙회 임시이사회에서 자체 진상조사위의 활동을 종료한다는 안건이 통과됐다.

자체 진상조사위는 지난 4월 24일 특전사동지회 회원들 간 유대감을 바탕으로 1980년 5월 광주에 투입됐던 3·7·11공수여단 예비역들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책임자와 조사위원 등 13명으로 구성돼 오는 2024년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특전사동지회는 5·18 진상 규명이 자신들의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고 판단했으며, 관련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해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전사동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자체 진상조사위는 진상 조사 활동을 위해 중앙회에 20억원의 예산을 내려 줄 것을 요구하고 총재·회장 결재까지 마쳤으나, 실제로 교부받은 예산은 ‘0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공법 3단계 ‘5·18 정신적 손해 시효 40년으로 연장’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부상자회, 공로자회 등 공법 3단체가 5·18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를 4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공법 3단체는 25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5·18 유공자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4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낸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19일 5·18보상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현행 5·18민주유공자의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에 따라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양 의원의 법안은 특별규정을 신설해 소멸시효를 40년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정부가 윤상원 원내총무를 비롯한 일부 5·18 유가족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로 항소한데 따른 것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자연과 만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
수목장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수목장의 장점

- ➔ 반영구적 사용가능
- ➔ 관리의 간소화
- ➔ 낮은 관리비
- ➔ 자연과의 동화
- ➔ 후손들의 부담 감소

※ 윤달 이장 상담 가능합니다.
광주 친환경 수목장

메모리얼 가든

24시간 연중무휴
☎ 062-464-3466